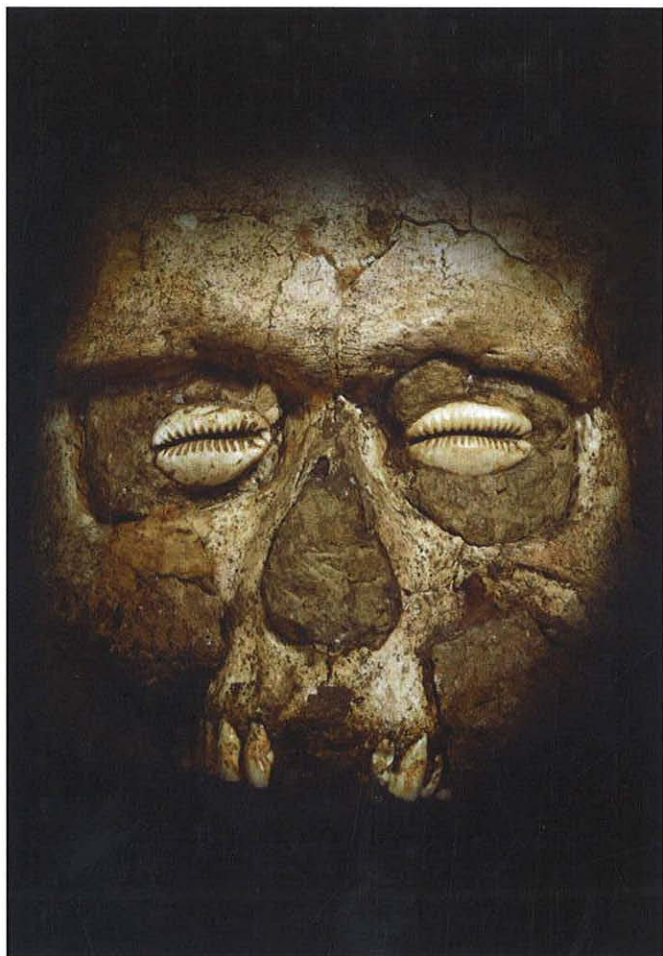


죽음의 고고학

마이크 파커 피어슨 지음 | 이희준 옮김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Mike Parker Pearson

지은이

마이클 파커 피어슨 Mike Parker Pearson은 사우샘프턴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셰필드대학 고고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관심 분야는 장송의례고고학, 문화유산 관리, 사회인류학, 야외고고학, 고고학 이론이다. 영국, 덴마크, 독일, 그리스 등에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헤브리디스 제도, 마다가스카르와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의 현장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저서로는 *Bronze Age Britain, Architecture and Order: approaches to social space*, *Earthly Remains: the history and science of preserved bodies*(공저), *Warfare, Violence and Slavery in Prehistory*(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

이희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석사)

동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전공(박사)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역임

현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고고학 이론 및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한국 고대국가 형성과정을 고고학으로 해명하는 작업과 신라를 고고학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전공으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신라고고학연구』가 있으며 역서로는 『인류의 선사문화』, 『고고학 세계로의 초대』, 『현대 고고학의 이해』, 『현대 고고학 강의』, 『Discovery!』가 있다.

1장 우리는 망자로부터 무엇을 알아내는가? • 7

어떤 바이킹 족의 장례 · 7 / 인간 유해 연구: 죽음의 고고학인가 아니면 삶의 고고학인가? · 11 / 매장 · 14 / 화장 · 18 / 부장품 · 20 / 공동묘지의 구조 · 26 / 인신희생 · 35 / 소결 · 39

2장 지금으로부터 옛적 그때로: 민족지고고학과 유추 • 41

죽음의 사회인류학 · 42 / 통문화적 일반화와 신고고학의 중위 이론 모색 · 53 / 장례습속: 인간의 작용, 권력, 이데올로기 · 62 / 민족지고고학과 유추의 재검토 · 65 / 탄드로이 족의 장례습속과 기념물성의 등장 · 69 / 우리를 대상으로 한 민족지고고학: 영국과 미국의 장례 습속 · 77 / 소결 · 83

3장 몸 읽기 • 85

최근 및 현대 영국에서의 죽음에 대한 거리 두기 · 89 / 신체의 파괴 · 93 / 인체 먹기 · 97 / 시신의 자세 잡기와 꾸미기 · 102 / 없어진 익명의 시신 · 104 / 신체의 보존 · 105 / 이집트 신왕국 파라오들과 우주로서의 시신 · 106 / 성인의 유골들: 불가사의한 물질로서의 인간 유골 · 113 / 파지리크의 냉동 무덤: 신성한 경계로서의 사체 피부 · 114 / 토탄 늑 사체들: 인신 희생인가 사회적 추방인가? · 124 / 소결 · 133

4장 지위, 계서, 권력 • 135

사회진화론 · 136 / 매장습속의 변이성과 사회조직 · 138 / 신고고학의 지위 연구 사례들 · 142 / 부장품과 지위 · 147 / 식단, 건강, 지위 · 152 / 부장품과 지위의 재고 · 155 / 계서와 권력 사이의 관계 · 162 / 마운드빌: 선사시대 '군장사회'의 장송의례들 · 164 / 소결 · 176

5장 젠더와 친족관계 • 177

뼈 연구에 의한 성 판별 · 178 / 페미니즘 이론과 젠더 구분 고고학의 등장 · 180 / 젠더 정체성과 정황의 의미들 · 188 / 어린 망자: 과거 어린이의 고고학적 연구 · 192 / 덴마크 선사시대의 여자, 남자, 어린이 · 195 / 의복, 젠더, 친족관계 · 203 / 친족관계와 신고고학 · 207 / 층서에 의한 계기순서와 친족관계 · 212 / 장송의례 접근법과 생물학적 접근법의 통합 · 217

6장 망자의 안치 • 229

망자를 산 자로부터 분리하기 • 230 / 망자의 성스러운 장소 • 240 / 무덤과 영역 • 243 / 혈통 집단과 영역성 • 250 / 전망을 가진 무덤 • 256 / 소결 • 259

7장 인류의 죽음 경험 역사 • 261

죽음과 시간 • 262 / 장송의례와 인류성의 기원 • 268 / 중기 및 후기 구석기시대의 매장들 • 272 / 전기 구석기시대: 시신 정식 안치와 식인습속? • 280 / 기념 건축의 탄생 • 286 / 조상 세계의 구축 • 288 / 회반죽 칠한 두개골로부터 작은 상으로: 대지모신 신화, 폐기되다 • 295 / 불멸성의 추구 • 300 / 세계 종교의 흥기 • 307 / 세속적 신앙의 등장 • 309

8장 망자를 둘러싼 정치 • 311

아메리카 인디언과 고고학자 • 314 /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과 그들에 대한 잔학행위 • 320 / 전 세계의 인골을 둘러싼 정치 • 323 / 영국에서의 법적 요건과 문제 사안들 • 329 / 영국에서의 고고학과 공중 • 334 / 인간 유해 처리에 관한 율리강령 • 336 / 망자 절취와 약탈—도굴의 문제 • 342 / 20세기 잔학행위의 고고학 • 346 / 망자는 누구의 소유인가? • 348

9장 에필로그: 죽음과 기억 • 353

의례 • 355 / 건축, 죽음, 기념물들 • 358 / 결론 • 361

부록 인간 유체의 발굴 • 363

발굴 전 준비 • 363 / 매장 발굴 • 365 / 화장묘 발굴 • 370 / 기록 • 371 / 인골 수습과 임시 보관 • 371 / 발굴 후 정리 • 373

참고문헌 • 375

옮긴이의 말 • 411

찾아보기 • 415

죽음과 매장에 관한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돋보이는 책

이 책은 고대부터 가까운 과거까지의 매장 방법과 장송의례를 고찰한다. 유럽과 근동의 구석기시대, 북부 유럽의 중석기시대, 아시아와 유럽의 철기시대를 포함한 여러 시대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풍부한 사례연구를 담고 있다. 또한 인간 유해와 재매장 문제, 도굴, 전쟁 범죄를 둘러싼 정치적·민족적 분쟁도 서술한다.

망자의 시신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개인의 지위와 위서, 젠더, 그가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를 비롯해 마지막으로 어떤 식사를 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단서들은 우리가 옛 사람들의 삶과 과거 세계를 더욱 강력하게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근래의 고고학적 사고들—사회인류학, 신고고학, 비교문화적 일반화와 중범위이론—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탈과정주의 고고학·인지고고학, 민족지고고학과 구조주의, 매장의 변화와 사회체제, 젠더와 혈연관계를 고찰한다. 그는 DNA조사방법 등과 같은 신기술과 과학적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덧붙인다.

『죽음의 고고학』은 과거를 가장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를 개관하고 종합한, 유례없는 책이다. 투탕카멘에서 냉동인간에 이르는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 사례 몇 가지의 고고학적 정황을 창조적으로 복원해 내고 있으며, 그래서 죽음과 매장에 대해 전문적 관심사나 일반적 호기심을 가진 고고학자, 선사학자, 사회인류학자, 역사학자, 일반인들이 틀림없이 열독을 하리라 기대된다.

다양함과 깊이가 인상적이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이 분야의 교과서적인 책으로 남을 것이란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 *Mortality*

우리를 비취볼 수 있는 자료, 최신 관점의 이론적 요점, 그리고 유용한 참고를 제공하며, 실질적이고 일관되게 접근한다. - *Antiquity*